

서점현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한국출판협동조합 제4차 지역서적상 간담회

한국출판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제4차 지역 서점인과의 만남을 지난 11월 21일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비치호텔에서 개최했다.

부산·경남지역 서점인을 초청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유통현대화와 합리적인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우리 서점 현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그 정책적, 자구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발표된 논문은 한국출판연구소 김경희이사장의 「변화하는 세계 속의 한국 서점문화 발전 방향 모색」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이원홍 위원장의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유통구조 활성화 방안」 미국 샌프란시스코 웨스틴 퍼블리케이션 서비스 대표 송승훈씨의 「괜찮은 책방은 어느 정도여야 할 것인가」 마산 문화문고 대표 권철모씨의 「지방서점이 풀어야 할 몇가지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등이다. 이중 김경희, 이원홍, 권철모씨의 논문을 요약발췌한다.

출판사와 서점은 '이와 있음'

김경희—'책의 문화'라는 울타리 속에서 출판인과 서적인은 공급인과 생산자로 나눠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문화전달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이와 있음'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 동반자이다. 따라서 오늘의 출판산업에 제기되는 문제—전자매체와 영상매체의 발달이 책의 문화에 끼치는 영향, 출판시장 개방, 사회의 낮은 인식도—는 출판인과 서적인 모두에 연관되어 있으며 그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1992년은 세계적으로 불황의 늪에 빠진 해로 기록될 것 같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의 출판계와 서적업계는

만성적인 불황의 늪에 빠져 있다

지역이 압도적이다. 특히 서적업계로서는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건물 임대료

상승, 소품의 도서판매 마진을 등

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경제적 고통에 처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는 도서관의 절대부족과 도서관 구입비의 미미, 조직적인 독서운동 부재 등 독서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서점업의 영세성(90%가 임대)으로 인한 건물 임대료의 과대한 부담, 상대적 세금부담 압력, 도서정보 부족, 일부도서의 마진을 부족 등은 한국서적업계의 불황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출판산업이 올 한해의 불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인 불황을 겪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의 출판시장 개방은 위협하기 짝이없는 일이다. 정부당국자들은 시장개방이 국제화의 대세이며,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논리로 문화산업의 우선 개방으로 외국의 개방 압력을 말끔하게 하려고 한다.

외국의 시장개방 압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

다. 우선 편의점을 통해 인기 출판물 판매를 확대 강화하고 외국도서 수입전문서점 등을 개설할 것이다. 국내 중대형서점과의 합작 내지 자본참여도 시도 할 것이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단독 또는 합작으로 대형서점이나 도매서점을 개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단계 중에 출판업과 복합문화사업에도 깊숙히 자리 잡을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사실로 전개된다면, 기존의 유통체계는 구조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우선 인력 이동이 심화되고 영세사업체의 휴·폐업이 속출할 것이며, 우리 교육·문화에도 중대한 변화가 올 것이다.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출판산업도 상품 개발에서 기획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때문에 유능한 기획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 출판계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하여 대우가 낮아 우수한 인재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상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문서적 출판이 기피되고 있으며, 그 대신 인기 있는 소설 등 대중물을 많이 출판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번역물에 매달려 87년 U.C.C.조약 가입 이전의 번역물 중복출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점은 어떠한가. 서점을 거리의 도서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서점이 갖는 기능이 문화·정보센터·자료수집점 등 다차원적이기 때문이다.

서점도 이제 과거의 모습에서 달라져야 한다. 경영전반에 걸친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문방구, CD, 비디오, CD-ROM 등의 취급으로 경영다각화를 꾀해야 한다. 또한 유능한 사

원의 창의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원 연수를 실시해야 하며 전산화는 출판계와 공동으로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출판계와 서적계가 마진율문제나 정가제, 덤핑문제등을 함께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서점업계에 대한 세계상의 지원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반문제에 해결을 위해서 출판계와 서적계 공동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상설협의 기구와 대외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한 출판산업

이원홍—출판 서점계의 불황을 빨리 타개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도서구입을 대폭 늘려야 한다.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 268개(91년)의 작년 예산이 494억7678만원이지만 그 93.6%가 인건비와 운영비에 충당되었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는 불과 6.38%인 5996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1개 도서관의 1년 도서구입비가 평균 118만원 꼴이다.

대학을 제외한 각급학교 도서구입비도 34억 2천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대학도서관과 전문 및 특수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모두 합쳐도 1백억원을 약간 상회할 뿐이다. 그것은 4만2천종 2억4200만권에 달하는 발행 총수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다. 적어도 연간 총도서구입액이 1500억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

도서관진흥법은 출판사의 납본을 국립중앙도서관에 2부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0조의 도서관진흥기금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기금으로 도서를 구입할 수

한국 기독교문서 간행사 연구

— 1882~1945 —
金鳳姬 지음 / 6500원

19세기 말엽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성서·찬송가·잡지·신문·일반문서 등 기독교 문헌을 서지적으로 집대성하여 간행소별, 주제별로 목록화함으로써 기독교문서의 가치와 의의를 새롭게 구명해 주었다.

종교와 인간

徐洸善 지음 / 4000원

여러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성실히 개관한 종교적 입문서. 종교의 특수성과 기능, 우주·인간·신·구원·고통 등에 대한 세계 종교의 담변과 현대인이 겪는 종교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서술되었다.

기독교 초대교회 형성사

— 서양고대 종교사상사 —
루돌프 볼트만 지음 / 허 혁 옮김 / 6000원

기독교를 삶의 정황과 밀접하게 관련 맺고 있는 역사속의 한 종교로 이해하면서 고대 그리스 로마 종교세계에서 성장한 기독교 초대교회의 형성사를 서술, 기독교가 어떻게 새로운 실존이해의 가능성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를 해석한 신학서이다.

눌린 자의 하느님

제임스 콘 지음 / 玄永學 옮김 / 5000원

흑인들의 이야기, 인종차별이라는 사회적 현실을 성서의 메시지와 관련시켜 폭넓게 발전시키면서 지식사회학을 수단으로 지배자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된 백인 신학을 비판, 신학의 새로운 방향과 보편성을 모색하였다.

학술출판
대학교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연동 11-1 전화 : 360-3163, 360-3164 팩시밀리 : 312-4312



한국출판협동조합이 개최한 부산·경남지역 서점인 간담회.

는 없다. 도합 7400개의 각종 도서관이 전문서적을 종류당 적어도 한권씩만 구입해 주어도 7천부 이상을 소비시킬 수 있다. 또 문화부와 공보처가 시행하고 있는 추천도서 구입을 제도화하고, 92년도 문화부 3억원 공보처 5억원의 지원액을 20억원 정도로 확충할 수 있다면 양서출판에 자극제가 될 것이다.

출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현재로서는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문화부 올해 예산이 1439억9천만원이지만 이것은 33조2천억원의 예산 총액의 0.43%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 출판과 직간접 관련 있는 예산은 83억원, 전체의 5.8%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마저 직접적으로 출판지원에 쓰이는 것은 극히 일부일 것이다.

재정지원을 확대하려면 우선 문화부의 예산

을 총예산의 1.5% 수준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기금의 확충에는 방송사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방송사는 의무적으로 독서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의미에서 방송사 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출판계의 발전을 받쳐 주어야 할 것이다.

출판공고의 기금이 확충되면 서점도 그 수혜자로 포함시켜야 한다. 전국의 서점은 대형·군소를 모두 합쳐 4739개(90년 현재)라 한다. 그중 4분의 1인 1104개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규모로 보자면 점포면적 50평 미만이 3603개로 전체의 76%나 된다. 서점연합회에 의하면 소형서점의 연간 매출이 평균 1천만원 정도라 한다. 서점계와 출판계는 하나의 몸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출판계가 금고의 기금을 확충해서 서점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해야 하는 것이다.

서점도 스스로 자기개혁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콘소시엄 형식의 대형서점이 등장할 수 있다. 출판사업에 관심있는 자본의 참여도 바람직할 것이다. 장애가 있다면 서점의 이윤이 다른 업종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그것은 부상품의 개발로 조금은 만회가 가능할 것이다. 어쨌든 군소서점의 생존을 위해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유통구조의 개혁이다. 이 사업의 승패는 컴퓨터를 동원한 최첨단의 시설을 설치해서 전국의 출판사와 서점을 연결, 그들의 이익을 신장하고 업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새로 설립되는 유통회사는 도매·총판·직판·특판·소매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그 책임과 질서를 세우고 이윤보장을 구체적인 계약으로 성립시켜야 한다.

생존권에 직면한 서점업계

권철모—지방서점이 과연 그 지방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많지만 사업체의 전반적인 불경기는 차치하고라도 현재 서점이 처해 있는 상황은 '생존권'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의 인상은 서점 폐업의 중요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때문에 서점에서는 유통이 빠르고 마진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책을 진열할 수 밖에 없다. 직원들의 임금이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도 문제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장기근

속을 바랄 수가 없으며 짧은 경력 때문에 전문 지식도 일천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매장 확보·전산화 시급함에도 이를 마련할 여력이 서점으로서로는 없다. 이러한 것들은 현재의 충분하지 못한 마진을 때문이다. 소매상의 입장에서 보면 평균적으로 30% 정도의 마진은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잡지·참고서·전공서적은 물론 단행본까지도 30%가 넘는 책은 드물다. 그러므로 마진율이 높은 저급한 도서를 판매하게 되고 연쇄적으로 중복출판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제 서점경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한계점에 와 있다. 출판사는 출판사대로 확실한 원가개념을 도입해서 정가를 선정해야 한다.

책은 지식산업의 총체적 산물이기 때문에 책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책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야 한다. 또 서점교육을 위한 시설도 필요하다.

대다수의 정보 시설이 서울에 편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점의 전산화는 빠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출판 서적계가 통일된 방식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독자적인 체계를 만들어 상호 호환성이 없는 경우도 있어 손실도 크다고 본다. 유통구조상의 취약성은 우리출판의 영세성을 벗어나는데 제일 먼저 척결해야 할 과제다. 대형유통기구에 갖게되는 지역서점의 의구심이 불식된다면 현실적으로 유통기구가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현에 앞서서 출판 서적계의 의견의 폭넓게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성수 기자

온 가족이 함께 읽는 "사랑과 지혜가 담긴 동화"

깊어가는 겨울밤
엄마와 함께 읽는
"사랑과 지혜가 담긴 동화"는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우정,
평화, 자연의 아름다움,
창조의 신비, 고통의 의미를
깨우쳐 줄 것입니다.

서광사 130-072 서울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

1. 나만이 아는 나라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 원

2. 장난꾸러기 꼬마전구

E. 리곤 지음/김홍래 옮김/3,000 원

3. 비릴로의 동물농장

M. 아놀렛띠 지음/김홍래 옮김/3,000 원

4. 평화의 나라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 원

5. 여덟가지 진짜이야기

E. 산단게 지음/김홍래 옮김/3,000 원

6. 보물이 숨겨져 있는 나라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 원

7. 천지창조 이야기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 원

8. 진주섬 이야기

I.G. 올리바 지음/김홍래 옮김/3,000 원

9. 가장 소중한 성탄선물

L.C. 알리만디 지음/노재운 옮김/3,000 원

10. 하느님, 제 기도 들어 보세요

M. 라이스트 지음/강성위 옮김/4,000 원

11. 물방울의 추억

E. 드랄라 지음/채윤경 옮김/3,000 원

12. 황새와 아기바구니

M. 아놀렛띠 지음/김홍래 옮김/3,000 원

13. 사랑을 나누는 곰, 보로

R.M. 룬디니 지음/김홍래 옮김/3,000 원

14. 뇌 속으로의 여행

F.B. 니카씨오 지음/김홍래 옮김/2,500 원

15. 거리의 화가

F.B. 니카씨오 지음/김홍래 옮김/3,000 원

16. 가난뱅이 조니와 아르니카

E. 라야자르 지음/채윤경 옮김/4,000 원

17. 평화의 어린이들

G. 스타스 지음/채윤경 옮김/3,000 원

두 임금님

F.B. 니카씨오 지음/채윤경 옮김/곧 나올 책

낯은 자동차

G. 스타스 지음/김홍래 옮김/곧 나올 책

아프리카 동화

J. 커닝햄 지음/노재운 옮김/곧 나올 책

새앙쥐 나라의 올림픽

M. 아놀렛띠 지음/김홍래 옮김/곧 나올 책